

태풍 '매미'로 반파된 장애인 부부의 집이 노숙자센터인 부산 보현의 집 입주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희망의 집'으로 새 단장됐다.

9월 27일, 거덕도 놀차마을로 들어가는 두 대의 배에는 부산보현의 집 가족 10여명과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염불공양회 등에서 참여한 봉사자들이 가득 찼다. 모두 태풍 매미로 반파된 장애인 부부의 집을 복구하는 '희망의 집짓기'에 일손을 보태겠다고 팔을 걷어 부친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하루 일당도 마다하고 자신이 가진 건축 기술로 '몸 보시'를 하겠다고 나선 보현의 집 입주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태풍 '매미'로 또 하나의 아픔을 겪은 장애인 부부의 집을 봉사자들이 복구하고 있다.

### 보현의 집 노숙자들

## 장애인 '희망의 집' 세웠다

부산 강서구 천가동 놀차마을은 해일과 강풍으로 156가구 중 105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김동수(41, 시각장애 1급)와 박신화(41, 척추장애 2급) 집은 매립지에 지어져 외벽에 금이 가고 내벽과 가재도구들이 물에 쓸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복구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가 딱 한 사정을 알게 됐지요. 집 없는 고통을 겪어왔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며 부산 보현의 집에 살고 있는 김광태씨는 자신의 건축 기술이 김씨 부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힘

### 적십자 불교봉사회·조계종 복지재단 등과 함께 태풍 '매미'로 못쓰게 된 장애인 부부의 집 복구

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현의 집 입주자들이 건축 기술로 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에도 봉사에 적극 나서 화제를 모았었다. 전문기술을 가진 보현의 집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희망의 집'을 짓는 땅치질과 벽돌 쌓기를 시작했다. 지붕철거, 내벽 보수, 금이 간 외벽 보수 등

굵직한 일들은 보현의 집 입주자들이 맡았고 가재도구 정리, 자재 운반, 주변 정리 등은 봉사자들의 몫이 되었다. 깨어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보일러도 없이 밤을 보내고 있던 김씨 부부는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했는데, 정말 꿈만 같고 너무 고맙고..." 부인은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보일러도 새것으로 설치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부인을 위로하는 보현의 집 입주자들의 말은 투박하지만 정겨웠다. 장애의 고통에 태풍까지 겹친 김씨 부부의 '희망의 집'은 보현의 집 입주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팔과 정성 외에도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121만원의 보시를 비롯 안국사, 염불공양회, 일념회, 정심라이온스, 장진회 등의 보시로 지어졌다.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 종교인 화합 산사음악회 11일 내원암

### 불교 등 5대 종교 성직자들 한무대에 간장·된장 판매수익금 수재민 돕기로

지난 6월 월드컵 개최 1주년을 맞아 6대 종교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던 종선스님이 이번에는 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11일 오후 3시 대둔산 내원암에서 '마음으로 자연으로 음악으로' 하거나 되는 가을산사음악회 2003'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불교, 성공회,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5대 종교 성직자들의 무대가 선보인다. 내원암과 한울림합창단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비구스님, 승가대학 학인 비구니 스님, 신부, 수녀, 교무, 정려 등 성직자 20여명이 모여 만든 5대종교연합합창단의 '사랑으로' '내원암 산길에서' 노래가 선사된다. 이 밖에도 국악, 승무, 중계제 판소리 병창, 동편제 판소리, 울산불교합창단 합창, 트럼펫독주, 가야금 작곡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다. 특히 이날 판매되는 사찰에서 만든 간장, 된장 판매 수익금은 태풍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을 돕는데 사용된다.

종선스님은 "종교의 벽을 허무는 지름길은 자주 만나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며 "축구대회로 시작된 종교인들의 만남이 음악회는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 지지불교대학 황통사(주지 도일스님)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황통사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통기타 하나로 음성교포를 펼치는 도일스님을 비롯해 불자가수 박정석씨의 천년바위, 탈마스님의 동해소리 및 관음춤 등과 함께 합창단과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산사를 휘감을 전망이다. 천미희 기자

## 초산유원지 개발 본격 저지

### 통도사 스님들, 현장감시·공사중지 신청

통도사 인근에서 추진 중인 초산유원지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통도사 스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도사와 시공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초산유원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통도사 환경위원회 스님들은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공사를 막자 시공업체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상은 최근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통도사 환경위원회의 주장이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면서 촉발됐다. 통도사 환경위원회측도 시공업체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중지가 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천미희 기자

이처럼 초산유원지 건립이 법적 싸움으로 비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통도사에서 불과 400-500m 반경 안에 유원지가 개발되면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자연환경과 수환경상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통도사측의 주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공사를 백지화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공업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환경위원회의 주장이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면서 촉발됐다. 통도사 환경위원회측도 시공업체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중지가 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천미희 기자



###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자 정해원·강호인 씨 선정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해륜스님)가 제20회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정해원(한국장호공사 대표·사진 왼쪽)과 강호인(마산 구암초교사·오른쪽)씨를 선정했다. 1979년 '아침'으로 문단에 등단한 정해원 씨는 1979년부터 부산시조문학회(법씨)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강호인 씨는 현대시조, 시조문학 주론과 시대문학,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했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지원봉사회가 주최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현장.

### 박물관 전문안내자 양성

### 통도사 문화지원 봉사회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지원봉사회는 2003년도 자원봉사자 1차 전문안내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9월 22일, 25일, 27일 3일동안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전시실내 전시 유물에 대한 집중 강화 교육으로 슬라이드 강의와 현장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지원 봉사회는 전시실 성보해설집 '길라잡이'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길라잡이' 개정증보판은 문화지원봉사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설명과 안내를 돕게 된다. 천미희 기자

## 대구경찰청 경승진흥회 창립

### 경찰서에 법당 마련 등 실행 활성화

대구지역 불교계가 경찰청과 협력을 위해 적극 나설 전망이다. 불교계 최초로 경찰청과 후원을 위해 지난 7월 결성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진흥회(회장 유상중)는 9월 26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10월 말 정식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원각스님, 각 경찰서 불자회장 등 50여명의 경찰청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 경찰청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상중 회장은 "군불교의 근승과

는 달리 경승은 명예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찰청과 협력을 위해 경승진흥회가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회장은 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 산하 8개 경찰서 중 6곳에 법당을 가지고 정기법회를 보는 불자회는 각 1개소 밖에 없다"며 지역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정식 발족을 앞둔 경승진흥회는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직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10월중으로 산하 8개 경찰서 경승실에 지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 노숙자 무료급식 공간 대성사, 향림당 낙성

천태종 대성사가 사찰 내에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 달서구 천태종 대성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공간 향림당 낙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총무원장, 총무원장 윤덕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성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 2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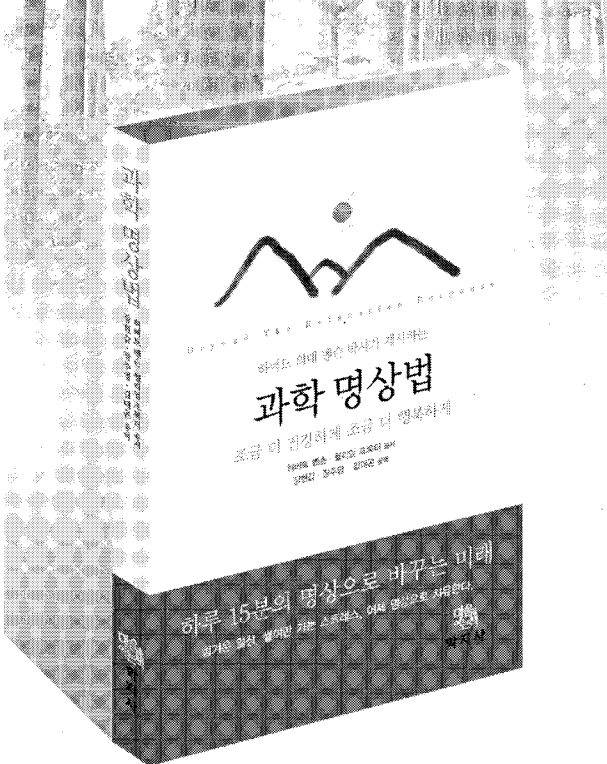


◁노숙자 무료급식소 향림당은 대웅전 앞마당 지하에 건립됐다.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성사 주지 문덕스님은 "아이에에서 실시된 무료급식으로 어르신들이 식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향림당 낙성으로 더 편

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향림당을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해 경로잔치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새로 건립된 향림당은 300평 규모로 한꺼번에 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갖췄으며, 지난 99년부터 대성사가 인근 두류공원에서 진행한 무료급식을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하게 된다. 박원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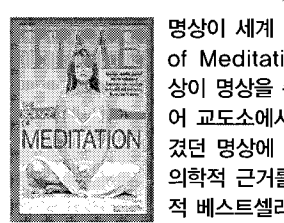
# 왜 지금 명상의 열풍이 부는가?

힘겨운 일상,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 이제 하루 15분의 명상으로 치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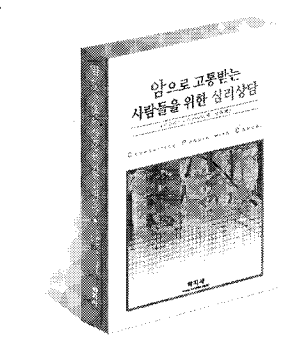


## 명상계의 대가이자 400만 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제시하는 과학 명상법

역자 :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과 교수/영남대학교에서 유미경 강) · 장주영(명상학회와 명상과학 전문번역가) · 김대근(한경이카데미 원장/명상지도자)



명상이 세계 최고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 '명상의 과학(the Science of Meditation)'이라는 특집기사로 실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1,000만 명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 병원, 법률사무소, 정부청사, 회사 사무실,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신비한 미신' 정도로 여겼던 명상에 대해 '무한 효능이 갖는 과학'이라고 경탄하며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상열풍의 모태가 된 의학박사 벤슨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완반응>의 후속서 <과학 명상법>이 명상열풍의 진실을 밝힌다.



###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암이 진행되어 가는 단계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추구해 보아야 할 주제들은 무엇인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고 명확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M. Burton & M. Watson 저/이은희 역/신국판/양장/352면/15,000원

"행복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방법으로 하루 15분의 명상을 추천한다. 명상은 지혜를 얻어 현명한 삶을 살아가 수 있게 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김해관 사장(천명포리니)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티벳 승려들의 수행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명상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상 지침서." 정규수 회장(삼우 EMC, 세일번호제)  
"몸과 마음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과학 명상법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병철 회장(우리금융그룹)

허버트 벤슨 · 윌리엄 프록터 공저/장현갑 · 장주영 · 김대근 공역/국판/양장/212면/8000원  
\* 이 책과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이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02-3604-8855)